

“광주무용의 자부심 계승하며 대중화 힘쓸 것”

오윤환 광주무용협회 신임 회장 기자간담회

주요 공연 일정·사업 계획 발표
광주무용제 등 주력사업 4개 추진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개발 등
타 협회와 교류·안무가 지원 강화

“다수의 수상 경력에 빛나는 명문 협회를 맡게 돼 영광입니다. 취임 기간 광주무용협회 위상에 걸맞은 성과를 내는 한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용이 생활 예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윤환 (사)대한무용협회 광주시지회 (광주무용협회) 신임 회장은 17일 광주 동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오 회장은 이날 “전국무용제에서 최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명문 협회의 회장직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올해 다가올 전국무용제에서도 광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겠다”며 “35년간 광주무용의 자부심으로서 위치를 지켜온 역사와 뿌리를 토대로 광주무용협회를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무용협회는 올해 △광주무용 최고의 순간들 △광주무용제 △빛고을 청소년 춤축제 △광주시장·교육감배 전국학생무용경연대회 등 4개의 주력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 무용 최고의 순간들’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해 매년 11월께 전국무용제에 출전하는 광주무용협회의 대표 작품을 광주시민들과 무용인들에게 선보이는 공연이다. 광주 무용계의 저력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자 기획돼



오윤환 (사)대한무용협회 광주시지회 신임 회장. **광주무용협회 제공**

올해도 지역 무용인들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공연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장소는 빛고을시민문화관 등 관내 주요 공연장으로 계획 중이다.

올해 34회째를 맞은 ‘광주무용제’는 전국무용제 출전을 위한 광주 지역 예선대회로 기능하는 동시에 광주 무용의 전국적 인지도를 높여왔다. 그간 여러 신인 안무가와 우수한 안무가들을 발굴했으며 지역 간 문화 교류 활성화와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올해 대회는 오는 5월10일 빛고을시민문화관 등 광주 내 주요 공연장에서 열린 예정이며 광주무용협회 소속 무용 단체 및 개인 안무가가 참여한다.

‘빛고을 청소년 춤 축제’는 매년 5-6월



지난해 열린 제33회 광주무용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문서빈무용단의 작품 ‘시월, 베르니케’. **광주무용협회 제공**

광주 동구 전통문화관에서 개최돼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무용 꿈나무들의 무대를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6월께 개최될 예정이며 순수무용, K팝 등 다양한 무용 예술을 소개할 방침이다.

‘광주시장배 전국학생무용경연대회’와 ‘광주시 교육감배 전국학생무용경연대회’는 학교 무용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무용 예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다양한 무용 분야에서 활약하는 초·중·고등학생 무용지망생을 한자리에 모아 실력을 펼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이들의 실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광주시장배 전국학생무용경연대회’는 4월5일-6일 이틀간 열리며 ‘광주시 교육감배 전국학생무용경

연대회’는 오는 8월께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오 회장은 그간 K프로발레협회 상임이사, 한국무용교사협회 전남 지회장, 광주무용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전광주시립발레단 수석단원 및 발레마스터, 광주 로얄발레단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며 안무 및 연출 등 창작활동에 힘써왔다. 또한 제20회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 연기상(2회), 광주예총 예술문화상, 광주무용인상, 박금지상, 제1회 광주국제발레콩쿨, 제1회 키로프국제콩쿨에서 입상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자랑한다. 그는 조선대학교 무용과를 졸업하고 동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국민대학교, 전북대학교에서 수년간 강의한 경력도 있다. 현재는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외래교수로 활동 중이다.

나인속 전임 회장에 이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오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오는 2028년 2월까지 광주무용협회를 이끌게 된다.

광주무용협회 관계자는 “지난 1990년에 창립된 광주무용협회는 올해도 오 신임 회장과 함께 광주 무용계의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고 무용 예술의 대중화를 실천하고자 한다”며 “특히 무용을 취미로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내부적으로 팽배했다. 향후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개발, SNS를 통한 홍보 강화, 타지역 협회와의 교류, 젊은 안무가 지원 등을 통해 무용 예술의 대중화에 힘쓰며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광주시향, 상반기 다채로운 공연 무대 올린다

이병욱 예술감독과 힘찬 도약
정기연주회·찾아가는 공연 등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은 지난 달 제14대 예술감독으로 취임한 이병욱 지휘자와 올 상반기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힘찬 도약에 나선다.

17일 광주시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찾아가는 공연 등 다양한 무대가 마련된다.

먼저 정기연주회는 상반기 총 6회로 구성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2025 신년음악회 ‘New Wave’, 이달 14일 개최된 신임 예술감독 취임 기념음악회 ‘Unison’에 이어 오는 4월1일 2025 교향악축제 프리뷰 공연이 찾아온다.

이어 4월25일 ‘운명의 봄’, 5월30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음악회 ‘형제들’, 6월 27일 ‘Contrast’ 순으로 관객을 맞이한다.

정기연주회 주요 프로그램으로 스트라빈스키의 ‘불새 모음곡(1919년판)’, 플라르크의 ‘교향곡 D단조’, 베토벤의 ‘교향곡 5번’, 파르트의 ‘형제들(프라트레스)’, 브루크너의 ‘교향곡 9번’ 등을 선정해 고전부터 현대곡까지 넘나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광주시향의 대표 기획연주회이자 해설이 있는 연주회로 많은 사랑을 받는 ‘오티

움 콘서트’도 올해 악기를 주제로 펼쳐진다. 오티움 콘서트 I ‘Marimba’는 4월 16일, 오티움 콘서트 II ‘Double Bass’는 6월13일 각각 개최된다. 공연은 1일 2회 진행돼 총 4회 선보인다.

이 밖에도 광주시향 단원들의 섬세한 연주와 독창적인 표현력을 가까이 감상할 수 있는 ‘체임버 시리즈’는 상반기 3회 예정돼 있다. 오는 21일 체임버 시리즈 I ‘Cello Moments’를 시작으로 다음달 14일 체임버 시리즈 II ‘Ignition’, 5월16일 체임버 시리즈 III ‘Romance of May’가 예정됐다.

또한 광주시향은 키즈콘서트 ‘모래 위의 클래식’과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시민 친화형 공연을 통해 지역 문화 향유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광주시향의 올해 상반기 공연에 관한 자세한 안내와 티켓오픈 일정은 광주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향은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공석이었던 예술감독(상임지휘자) 자리를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도하며 음악가와 관객의 신뢰를 받아온 이 지휘자로 채우게 됐다.

이 예술감독은 “시민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음악을 선사하고, 광주시향이 국내외에서 사랑받는 교향악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박찬 기자

“문화예술 활동 펼칠 노년층 모이세요”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전라·제주권 60세 이상 모집
오는 27일까지 이메일 접수

고령화 시대 속에서 노년층이 주체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2025 문화가 있는 날 실버마이크 전라·제주권’ 공모가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실버마이크’는 60세 이상의 공연예술가들에게 무대 경험을 제공·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젝트다. 이번 공모의 슬로건은 ‘무대 위에 핀, 우리들의 이야기’로,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감성을 문화로 승화해 무대에서 새롭게 꽃피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장애인의 시선 담아낸 전시 ‘그림이 된 이야기’ 눈길

동구 갤러리 생각상자서 28일까지
권민지 광주대 교수 등 작가 12인

권민지 광주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등 12명의 작가가 참여한 ‘그림이 된 이야기’ 전시가 오는 28일까지 광주 동구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열린다.

이 전시는 장애인에 관련한 이야기를 그

공모 접수는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gongmostory@gmail.com)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팀원 전원이 60세 이상(196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이며, 최소 1명부터 최대 10명 이내로 구성돼야 한다. 해당권역 내 지역 연고를 지닌 지역예술가일 경우 우대 사항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1차로 24개 팀을 선정할 후, 현장 오디션을 통해 최종 12개 내외의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팀에게는 공연 기회와 전문 촬영을 지원하며 팀별 규모에 맞게 1회당 공연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팀은 공모 요강과 함께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하며, 함께 제출할 공연 동영상은 3분 이내 공연 영상의 원본 파일로 제한된다. 초과한 분량은 심사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유

림과 글로 정리하고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을 다루는 작품들을 소개하는 자리다.

현재 광주대학교 언어치료학과장으로 재직 중인 권 교수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폐증·정신장애 등의 장애 관련 그림책을 그리며, 이번 전시에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완대체의사소통(AAC)에 대한 내용을



의해야 한다. 또한 심사 영상 3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촬영된 영상에는 촬영일시, 팀 소개(팀원별 성명과 역할), 곡 소개가 포함돼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 요강(https://blog.naver.com/sso6526/223759444338)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주)상상오(062-419-1272)로 하면 된다.

(주)상상오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전라·제주 지역의 노년층 예술가들에게 무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이야기와 예술적 감각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담아냈다.

한편 광주대 언어치료학과는 의사소통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계적인 이론과 임상실습을 통한 언어치료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직장인 및 성인학습자를 위한 전일제 실시학과로 언어재활사 2급(국가자격증), 미술상담사, 아동 및 노인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을 통해 졸업 후 의료, 복지, 교육, 공공기관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박찬 기자**